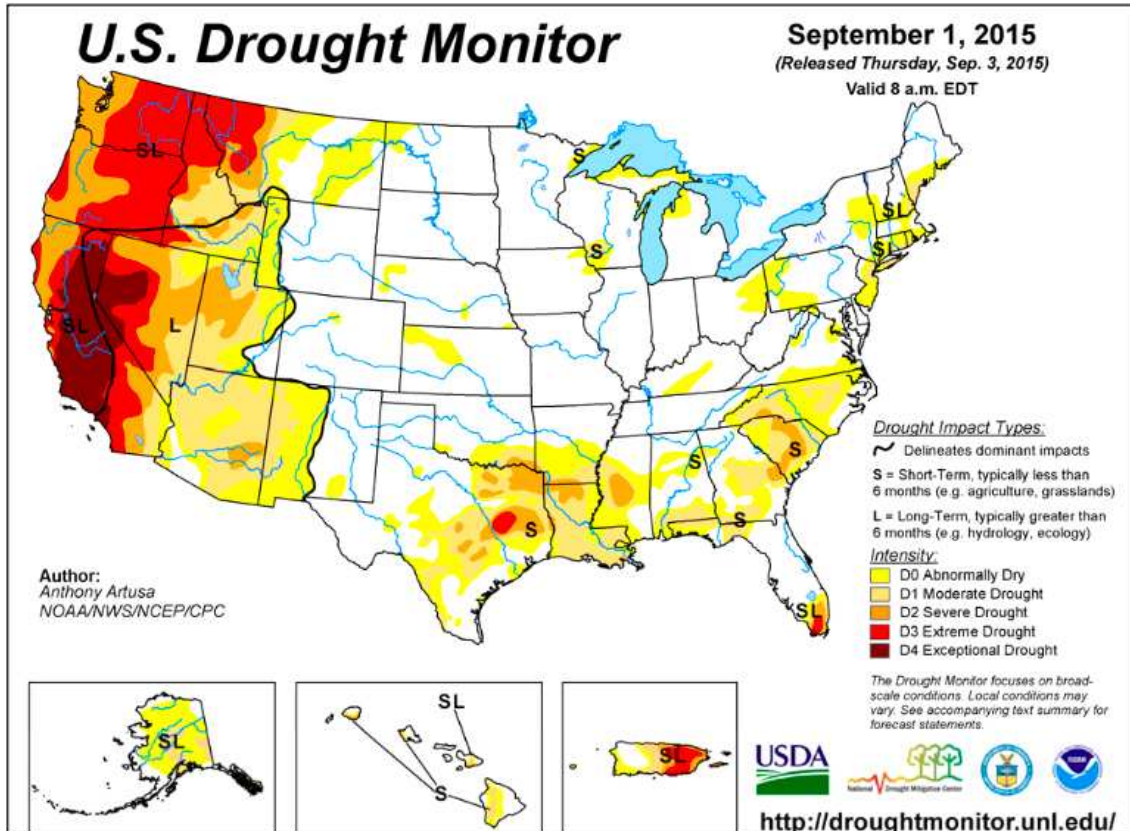


9월8 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36)

□ 미국 기후 현황(8/30~9/5)



대평원, 중서부 지역에서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농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늦더위는 그동안 생육이 지연되었던 옥수수과 콩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북부와 대평원 중부의 평균기온도 평년보다 5~10°F 높았다. 허자머느 북서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고, 기온도 비교적 선선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비로 이 지역 일대의 산불진화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었고, 북서부 지역의 겨울밀 파종 지역에도 충분한 양의 수분이 공급되었다. 캘리포니아 등 그밖의 서부지역에서는 지난주에 비해 시원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가뭄은 지속되도 있는 상황이다. 중남부 및 북동부 일대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화창한 날씨 덕분에 농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남부와 대서양 연안 및 걸프 연안 일대에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기도 했다.

□ 농업 현황 요약(8/31~9/6)

전반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확작업은 막바지에 이르렀고, 일부 지역에서는 겨울밀 등의 가을철 파종작업도 시작되었다. 로키산맥 동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졌고, 특히 중서부 일부 지역과 대평원 북부지역의 경우 평년보다 9° F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서부의 경우 평년보다 기온이 낮았는데, 태평양 북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한주간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교했을 때 6° F 이상 낮았다.

■ 옥수수

전국적으로 지난 주말까지 호숙기(dough stage)에 도달한 재배지 비율은 96%이며,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2%p 앞서고 있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약간 앞선 상황이다. 같은 기간 기준 황숙기(denting stage)에 도달한 지역의 비율은 76%이며, 이는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9%p 앞서지만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앞선 수준이다. 옥수수 지대 북부에서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덕분에 미시건에서는 지난 한주간 황숙기에 도달한 지역의 비율이 22%p 증가했고, 미네소타에서도 20%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9월 6일 기준 전체 옥수수 재배지 가운데 약 20%의 지역에서 성숙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6%p 앞서지만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6%p 낮은 수준이다. 8월 날씨가 예년에 비해 선선했던 탓에 옥수수를 재배하는 주요 18개 주 가운데 15개 주에서 성숙단계에 접어든 재배지 면적 비율이 직전 5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와 같은 수치이고,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에는 6%p 낮은 수준이다.

■ 면화

9월 6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면화 송이가 형성된 비율은 95%로 이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는 4%p,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5%p 낮은 상황이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는 면화송이가 벌어진 재배지 비율은 3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7%p, 직전 5개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7%p 낮다.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가 매우 좋은 생육상황을 보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보다 1%p 하락한 수치이며,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에는 비슷한 수준이다.

■ 쌀

9월 6일 기준 전국 수확율은 35%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10%p 앞서고, 직전 5개년 평균에 비해서도 약간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알칸사스에서는 지난 한주간 수확작업이 14%p 진행되었고, 미시시피의 경우에도 12%p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응답자의 65%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보다는 약간 하락한 수치이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9%p 낮은 수준이다.



□ 세계 기후 현황(8/30~9/5)

■ 유럽: 중부와 북부 지역에서는 단비가 내렸고, 남동부 지역에서는 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는데, 이번 비는 토양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기도 하였지만, 여름작물의 수확과 겨울밀 파종작업이 비로 인해 지연되기도 했다. 폴란드와 발틱 지역에서는 3~30mm의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이번 비가 내리기 이전에 북동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37°C 까지 오르는 등 더운 날씨가 잠깐 동안 이어지기도 해서 작물 생육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여전히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낮 최고기온은 33~39°C까지 오르내렸다.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지난주에 비가 내린 이후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져서 농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스페인에서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렸고, 이베리아 반도 남부와 중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져 옥수수과 해바라기의 수확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 구소련(서부):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져 농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서부의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평년보다 5~8°C 이상 높은 기온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작물의 생육이 앞당겨지고 있다. 남부의 경우에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도 평년보다 3~6°C 높게 유지되고 있고, 옥수수와 해바라기의 수확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주까지 파종한 겨울작물의 정작 및 발아를 위해서는 앞으로 몇차례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부 및 Volga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으며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고 강우량은 3~25mm를 기록했다.

■ 동아시아: 중국 북부 평원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는데, 이번 비는 옥수수 등의 작물 성장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면화의 경우 면화송이가 벌어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Yangtze 계곡 일대에는 10~100mm 내외의 비가 내렸으며, Hubei 등 분지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남부지역에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번 비로 남부의 벼 재배지역에는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었다. 반면,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옥수수와 대두는 좋은 생육상황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는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지만, 농경지가 침수되지는 않았다. 남한에서는 지역에 따라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일본에서도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호주: 서부에서는 2~1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동부에서도 5~25mm의 비가 내렸는데, 이번 비로 수확 전망은 한층 더 밝아졌다.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와 호주 남부에도 비가 왔으며, 이번 비로 이 지역의 수확전망이 한층 더 밝아졌다. 지난 두 달 반 넘게 평년보다 적은 양의 비가 내렸던 빅토리아 북부 지역에서도 반가운 비가 내렸다.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 일대에는 맑은 날이 이어졌다. 퀸즐랜드 남부에서도 5~1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밀 재배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나 평년보다 약간 높은 정도이며, 낮 최기온은 10°C 후반에서 20°C 초반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 아르헨티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주요 곡창지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으며, Misiones 일대에만 1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중부 지역의 La Pampa, Buenos Aires, Cordoba 남부, Santa Fe, Entre Rios 등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0°C 초반까지 올랐고, Buenos Aires 남부와 북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까지 올랐다. 한편, 남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다. 북부 지역에서는 지난 한주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3~5°C 정도 높았으며, 주 초반에는 낮 최고기온이 35~40°C에 이르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9월 3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98%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밀의 경우 전국적으로 수확작업이 모두 종료되었다.

■ 브라질: 남부지역에서는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비가 그쳤다. Santa Catarina에는 25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Rio Grande do Sul, Parana 남부, Sao Paulo, Minas Gerais 남부 등에서는 10mm 정도의 비가 내렸다. 남동부에서는 맑은 날이 이어져 사탕수수과 커피 수확작업이 진행되었으며,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밀의 수확작업도 시작되었다. Parana 주정부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밀의 수확률은 10%이며, 나머지 90%의 지역 가운데 70%의 재배지에서는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중서부와 북동부 내륙의 Mato Grosso, Piaui 북동부 등에서는 평년보다 2~4°C 정도 높은 더운 날씨가 반복되었다. Mato Grosso에서는 대두의 파종작업이 9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북동부 해안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평년과 달리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이상기후가 이어지고 있다.